

2023 년 여름학기 안내

여름학기						
BT233N PT547N	5월22일(월) ~ 6월2일(금)	Paradigm Shift in Zeitgeist towards Holistic Spirituality 통전적 영성을 향한 시대정신의 전환	3	정재현 Prof. Jae Hyun Chung	온라인	선택

- 여름학기 수강신청은 4월 17일(월) 부터 2023년 5월18일(목) 까지입니다.
- 여름학기는 분납이나 장학금 혜택이 없습니다.
- 이 수업은 대학 과정(BT233N)과 대학원 과정(PT547N)의 선택과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교무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업은 두 주간 동안 오후 5:00-9:00시까지 4시간씩 총 40시간 줌(2133884000)으로 합니다.
- 청강을 원하는 사람들은 학비의 50%를 지불하고 등록합니다.
- 교재는 강의를 담당하는 정재현 교수의 저서 중 <신학은 인간학이다>이며, 이 책은 현재 학교에 구비되어 있어 저자할인가로 공급하며 수강신청 후 주문받고 배포할 예정입니다.

과목 설명

오늘날 부상하는 전인적 영성은 시대정신의 전환에 따른 기독교 사상의 변천과정과 함께 축소되었다가 확장하면서 형성되어왔다. 구체적으로, 인간이 자신의 유한성에 대한 자의식에서 시작한 초월지향성이 원초적 종교성을 형성했었다. 그런데 이 성정이 문명태동이전에는 미분적 단일성이었는데 문명화와 함께 인간정신이 고중세에는 이성-감성으로, 근대에는 지성-감정-의지로 분화하면서 종교성이 기능적으로 축소되었다. 이 과정을 억압으로 겪게된 현대는 이에 대한 항거로 전인적 해방을 요구하게 되었고 여기서 통전적 영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 과목은 기독교 태동 배경으로서의 시대정신이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영성의 통전성을 추구해야 할 마땅한 근거와 함께 실천의 길을 찾고자 한다. 고대와 중세시대에는 신앙을 이성과 대응하는 것으로 보기 시작했지만 근대에 와서는 지성-감정-의지를 아우르는 정신의 차원에서 신앙의 요소적인 특성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그러한 접근은 신앙을 인간의 부분으로 축소하는 환원주의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억압과 강박으로부터 해방을 위해 전인성 회복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영성이란 그러한 전인성 회복이라는 요구에 부응하여 새롭게 강조된 것이다. 따라서 전인적 영성의 형성을 위해 축소되고 왜곡된 신앙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은 필수과제이다.